



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·사 협력 방향

김혜란 연구원

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인구고령화는 다른 국가에 비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.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공적연금제도는 기존에 확정급여형이었으나 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되었음. 라틴아메리카 6개 국가에 대해 은퇴저축의 과소적립액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금갭을 추정한 결과 2조 2천억 달러(US)로 나타남. 이러한 연금갭 해소를 통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공·사 협력이 요구되고 있음

■ 라틴아메리카 국가¹⁾의 인구고령화는 다른 국가에 비해 급속히 진행되어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²⁾

- 전 세계 연금제도는 인구구조의 변화, 투자수익률의 저조, 국가예산 감소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며, 특히 기대수명 증가 및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고령화가 문제임
- 1950년에서 2015년의 인구구조를 보면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14세 이하 인구 및 65세 이상 인구는 전 세계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 또는 증가하고 있음(〈표 1〉 참조)
 - 전 세계 노인부양비율은 2015년 12.6%에서 2100년 38.1%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,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노인부양 비율은 동기간 동안 11.4%에서 58.0%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임

1) Latin America and Caribbean

2) Swiss Re(2018, 2), "Pension schemes in Latin America: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longevity"

〈표 1〉 전 세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인구구조 변화

(단위: %)

구분	전 세계						라틴아메리카 국가					
	0~14세		15~64세		65세 이상		0~14세		15~64세		65세 이상	
1950년	34.3	-8.2	60.6	△5.1	5.1	△3.2	40.3	-14.6	56.1	△10.6	3.6	△4.0
2015년	26.1		65.7		8.3		25.7		66.7		7.6	

자료: Swiss Re(2018, 2), "Pension schemes in Latin America: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longevity"

■ 라틴아메리카 국가³⁾의 공적연금제도는 기존에 확정급여형(DB)제도였으나 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확정기여형(DC)제도로 전환되었음

- 현재 칠레와 멕시코의 연금제도는 DC제도이며,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DB제도, 콜롬비아와 페루는 국가가 후원하는 DB제도와 함께 DC제도가 공존하는 시스템임
 - DB는 연금가입기간 및 은퇴시점 급여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고 기금(sponsor)이 퇴직 근로자의 재정적 책임을 지는 반면, DC는 개인연금계좌에 근로자 기여금이 적립되고 투자수익률에 따라 은퇴 후 연금액이 결정되므로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임

〈표 2〉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공적연금제도

국가	제도유형	전환연도	퇴직나이(세)		의무 기여율 (소득 대비)	가입률 (15~64세)	기금액 (GDP 비중)
			남자	여자			
아르헨티나	DB	2008	65	60	11%	42.5%	11.3%
브라질	DB	1988	65	60	8~11%	52.9%	20.1%
칠레	DC*	1981	65	60	10%	81.6%	69.5%
콜롬비아	DB/DC	1993	62	57	16%	59.2%	24.4%
멕시코	DC*	1997	65		6.5%	65.4%	14.05
페루	DB/DC	1993	65		10%, 13%	49.9%	23.4%

주: *는 아주 미미한 정도의 DB제도 존재

자료: Swiss Re Institute; National Statistics Agencies; National Social Security Agencies and Pension Fund Administrators Associations

■ 라틴아메리카 6개 국가에 대해 은퇴저축의 과소적립액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금갭을 추정한 결과 2조 2천억 달러(US)로 나타남

- 연금갭은 은퇴시점에 적정 소득대체율로 판단되는 65%에 해당하는 금액과 운영실적에 따라 예상

3) 연금갭 추정을 위해 인구·GDP·금융시장 심도 등을 고려하여 아르헨티나, 브라질, 칠레, 콜롬비아, 멕시코 그리고 페루 6개국을 선정함

되는 금액의 차이로, 적립금이 은퇴 후 필요로 하는 자금보다 부족한 수준을 의미함

– 브라질의 연금갭이 1조 2천억 달러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, 이는 인구규모와 확정급여형에 의존하는 연금제도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임

– GDP에서 연금갭이 차지하는 비율은 의무기여율, 자발적 저축계좌 사용(미사용), 퇴직까지 남은 연수, 기대 투자수익률에 따라 아르헨티나 74.9%에서 페루 19.6%로 국가마다 차이가 남

- 연금갭은 역사적으로 낮은 적립률 및 기여율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정부와 금융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초인플레이션, 은퇴 후 소득 가족지원문화, 금융시스템의 미성숙, 비공식적 경제활동에서 기인함

〈표 3〉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연금갭 추정

국가	은퇴까지 남은기간(년)	수령기간(년)	연금갭(억 달러)	GDP 대비 연금갭	추가 저축비율 ¹⁾
아르헨티나	26.0	18.9	4,760	74.9%	16.6%
브라질	26.1	18.8	11,884	66.0%	15.7%
칠레	24.9	22.7	1,233	50.8%	10.9%
콜롬비아	23.2	21.9	1,318	45.2%	11.9%
멕시코	30.0	17.7	2,826	24.6%	6.9%
페루	29.8	16.2	377	19.6%	4.3%

주: 1) 연금갭 해소를 위해 연간 소득 중 추가 저축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

자료: Swiss Re Institute; World Population Prospects; The 2015 Revision(2015), “Key Findings and Advance Tables”, United Nations

■ 이러한 연금갭 해소를 통한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공·사 협력이 요구되고 있음

- 공적부문은 연금제도를 둘러싼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개선 방법은 근로자 은퇴연령 연장, 개인의 의무기여율 상향, 연금기금관리자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, 연금기금관리자의 경쟁력 및 투명성 제고, 개인의 자발적 저축 인센티브화, 근로자의 비공식적 경제활동 제한 그리고 연금제도에 생명보험회사 편입 등임
- 생명보험회사는 은퇴 후 적정한 소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고취와 더불어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사망률 및 장수리스크 관리 외에도 유통채널 혁신·저소득층을 위한 제품개발이 요구되고 있음
 - DC 기여금 중 생명보험 의무가입은 가계 재정에 도움이 되며, 실제 칠레의 경우 근로자가 연금기금관리자를 통해 임금의 3%는 생명보험 및 소득보상보험 가입에 사용하고 있음
 - DB제도에서도 기금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생명보험회사에 사망률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음 **kiri**